

자외선차단 화장품 사용과 만족도

권수애, 김정숙*, 최종명, 유정자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

Studies on the Satisfaction and Use of UV Protection Cosmetic

Soo Ae Kweon, Jung Sug Kim, Jong Myoung Choi, Joung Ja Yoo

School of Chungbuk univ, Seowon univ.

1. 서론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이 발달되면서 프레온 가스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되어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이 인간생활에 해로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자외선은 비타민 D군의 합성 작용에 의해 구루병 예방, 살균소독 작용 등으로 유효성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색소침착과 주름, 백내장, 피부암 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햇빛에 과다한 노출을 피하고 자외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주 5일제 근무와 레저활동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포츠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여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화장품과 선글라스, 양산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차단 화장품 사용과 사용후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업체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2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6월 한달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SPS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χ^2 , ANOVA분석을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는 20대 여성과 미용관련 전공 대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야외활동으로는 주로 산책을 한

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화장품을 92.7%가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 계절에 상관없이 사용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의사(76.7%)가 있다고 답하였다.

3.2.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사용 행동

(1) 사용목적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피부암을 예방하는 등의 건강상의 이유보다는 검게 타는 것과 기미, 주근깨 등의 외형상의 이유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자외선차단 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과 피부타입, 피부민감도, 피부관리 빈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부타입과 피부민감도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피부관리빈도와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1> 자외선차단제 함유 화장품 사용목적과 피부관리 빈도와의 관계

구분	피부관리빈도					
	정기적	부정기적	반지않음	N	χ^2	
사용목적	암노화 예방	12(5.8) 15.8	4(6.0) 5.1	4(8.2) 3.7	20	10.52*
	기미, 주근깨	22(24.1) 28.9	24(25.0) 30.4	37(33.9) 34.6	83	
	피부타는것 방지	42(46.1) 55.3	51(47.9) 64.6	66(64.9) 61.7	159	
	합계	76 100.0	79 100.0	107 100.0	262	

* $p<.05$

(2) 사용계절

자외선차단 화장품을 사계절내내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용하는 계절에 따른 피부타입과 민감도, 피부관리빈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부관리빈도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2> 자외선차단제 함유 화장품 사용계절과 피부관리빈도와의 관계

구분		피부관리빈도				
		정기적	부정기적	받지않음	N	χ^2
사용계절	여름	15(19.7)	13(20.5)	40(27.8)	68	17.26**
		19.7	16.5	37.4		
	사계절	30(31.6)	34(32.9)	45(44.5)	109	
		39.5	43.0	42.1		
	필요시만	31(24.7)	32(25.6)	22(34.7)	82	
		40.8	40.5	20.6		
	합계	76	79	107	262	
		100.0	100.0	100.0		

*p<.01

(3) 바르는 부위

자외선차단 화장품을 평소에는 얼굴, 목과 팔부위에 야외활동시에는 얼굴, 팔, 목, 손, 다리의 순으로 나타나 야외활동시에는 자외선차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노출부위에 평상시보다 고루 바름을 알 수 있다.

<표 3> 자외선차단 화장품 바르는 부위

부위	평소	야외활동시
얼굴	223(85.1)	226(86.3)
목	89(34.0)	145(55.3)
손	48(18.3)	115(43.9)
팔	82(31.3)	189(72.1)
다리	21(8.0)	82(31.3)
온몸	5(1.9)	26(9.9)

(4) 사용하는 자외선차단 화장품 종류

주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선크림과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하고, 평소에는 파우더와 스킨에 차단성분이 있는 제품을, 야외활동시에는 파우더와 파운데이션에 차단제가 함유된 제품을 주로 사용하며 야외활동시 평소보다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용하는 자외선차단 화장품 종류

종류	평소	야외활동시
스킨	117(44.7)	106(40.5)
토너	55(21.0)	56(21.4)
로션	43(16.4)	42(16.0)
크림	56(21.4)	51(19.5)
메이크업베이스	152(58.0)	153(58.4)
파운데이션	89(34.0)	114(43.5)
파우더	122(46.6)	145(55.3)
선크림	190(72.5)	203(77.5)

3.3. 자외선차단 화장품 만족도

피부타입, 계절, 피부민감정도, 사용목적에 따른 자외선차단 화장품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결과 피부타입에 따라 지속성, 밀착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지속성은 건성피부가 가장 높게, 지성피부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밀착성은 건성과 중성이 높게, 복합성피부가 낮게 나타났다.

4. 결 론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피부관리를 받는 빈도에 따라 바르는 목적과 자외선차단 화장품을 사용하는 계절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외선차단을 위해 선크림외에 메이크업베이스와 파우더를 이용하여 평상시에는 얼굴과 목, 팔부위에 바르며, 야외활동시에는 얼굴, 팔, 목, 손, 다리 등의 순으로 노출부위에 고루 바르고 있으며, 자외선차단 화장품 사용 후 건성피부는 지속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지성피부는 지속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복합성 피부는 밀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는 피부타입에 따른 지속성과 밀착성을 반영한 제품의 생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1) 장경자, 임유성, 자외선과 피부에 관한 고찰, 경북논집, Vol. 4. 2000
- 2) 성희원, 전양진, 박혜선, 자외선 차단 의복에 대한 소비자 조사-아웃도어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 29, NO. 8. 2005